

고교 서열화 완화는 말뿐... 교육부의 '언행불일치'

# 명문고에 집착하는 공무원

세종시 소재 고교 재학 1/3 불과  
공무원 자녀 상당수 타지역 재학  
타지역 절반은 자사고 등 명문고  
혁신학교 재학 자녀는 단 1명뿐

〈교육부 공무원 자녀, 세종시 외 입시명문고 진학현황〉

고교 유형(인원)	학교명
자율형 사립고 (6명)	중앙고(1)·현대고(1)·휘문고(1)·보인고(1)·한양사대부고(1)·상산고(1)
강남3구 일반고(8명)	단대부고(2)·청담고(1)·상문고(1) 반포고(1)·배명고(1)·보성고(1)·방산고(1)
강남3구의 일반고(3명)	진명여고(1)·한영고(1)·신도립고(1)
전국단위 자율학교(3명)	공주한일고(2)·공주사대부고(1)
외국인·국제학교(2명)	청라달튼외국인학교(1)·북경한국국제학교(1)

/자료=김해영의원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소속 공무원 자녀 상당수가 자립형사립고(자사고)나 강남3구 소재 입시명문고 등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서열화 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직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 현황'을 보면, 교육부 공무원 자녀 상당수가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입시명문고, 전국단위모집 유명 고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가 5년 전인 2013년 12월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교육부 공무원 자녀 중 세종시 소재 고교에 진학한 비율은 전체 64명 중 3분의 1 수준인 22명에 그쳤다. 세종시 소재 고교 재학생 22명 중 20명은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2명(세종국제고 1명, 세종예술고 1명)은 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이다.

세종시 이외 소재 고교에 다니는 42명 중 절반이 넘는 22명은 대입 실적이 좋은 입시 명문고에 재학 중이다. 이 중 6명은 서울중앙고·현대고·휘문고·보인고·한양

사대부고(각 1명) 등 서울 소재 자사고와 전북 상산고(1명)에 재학 중이었다. 또 8명은 단대부고(2명), 청담고·상문고·반포고·배명고·보성고·방산고(각 1명) 등 강남 소재 유명 고교에 진학했다.

서울 소재 고교를 다니는 공무원 공무원 자녀 중 자사고나 강남 3구 이외 고교에 다니는 경우는 진명여고(양천구), 한영고(강동구), 신도립고(구로구) 각 1명씩으로 모두 입시 명문고로 알려진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또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충남 공주한일고(2명), 공주 사대부고(1명) 등 충남의 대표적인 입시 명문 자유평고와 인천 소재 청라달튼외국인학교와 북경한국국제학교 재학생도 각각 1명이 재학 중이다.

교육부가 강조하는 혁신학교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는 서울 신현고 재학생 1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19학년도 고교 신입생 선발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모집에서 일반고와 함께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 자사고 등에서 지난 2월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오는 14일 공개변론이 예정된 상태다.

김 의원은 "교육부 공직자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에 주소를 유지하면서 입시 명문고에 보내는 것은 고교 서열화 완화를 강조하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한 관계자는 "자녀들의 교우관계 등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에 다녔던 서울의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세종시로 옮긴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세종시 소재 고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국방부 페이스북은 "연필로 쓰세요~"



문영철

국방기자 칼럼

국방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보면, 가수 전영록의 히트곡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1983년)의 노랫말 "사랑을 할 때는 쓰다가 쓰다가 틀리면지 우개로 깨끗이 지울 수 있으니까요"가 떠오른다. 국방부는 페이스북에 논란이 일지 생각도 않고 포스팅을 했다가, 항상 뒤늦게 삭제하거나 수정을 하니까 말이다.

지난달 30일 기자는 '국방부 페이스북에 올라온 휴전 65주년 포스팅 문구가 이상하다'는 제보를 받았다. 국방부 페이스북을 찾아 보고 기자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3년여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된 지 올해 65주년입니다"라는 국방부 페이스북 내용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적절치 못하다는 게 군 안팎의 반응이다.

이 문구를 접한 전·현직 군인들은 "완전한 통일과 완전한 승리가 아닌 반쪽짜리 휴전이라도 패자라는 말을 쓰게 되면, 참전 유공자들과 유족의 마음은 어찌 되겠냐"며 거센 분노를 표출했다.

비교적 침착한 반응을 보인 한 군인도 "군인에 대한 존중을 중요시 했

던 노무현 정부와도 비교된다"면서 "북한의 남침을 국군과 U.N군이 격퇴한 의미마저도 퇴색되는 것 같다"며 씁쓸한 마음을 내비쳤다.

전사자에 대한 격하 표현은 최원수 국방부 대변인이 취임 후 두 번째다. 취임 1년도 안된 상황에서 한 달 간격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국방부다.

앞서 지난 6월 29일 국방부 대변인실은 한 언론사의 기사 하나를 외압을 통해 삭제했다. 제2차 연평해전 전사를 순직으로 표기한 국방부 페이스북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기사는 삭제됐지만,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 대변인실은 뒤늦게 순직을 전사로 바꿨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방부는 기사 삭제 이유를 묻는 만원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했다.

다시 휴전 관련 포스팅으로 돌아가 보자 기자는 제보를 받고 최 대변인과 이진우 부대변인에게 카톡으로 질의를 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페이스북 포스팅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해당 문구는 문화체육부 정책자문 기자단의 한 기자가 쓴 문구로 자체 검증은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휴전 65주년 관련 포스팅은 국방부 페이스북에서 내려졌다. 정말 국방부 페이스북은 연필 쓰고 지우며, 고민 많이 하고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기업 2곳 중 1곳 "글로벌 인재 채용할 것"

잡코리아, 139개 기업 설문

46% 1~5명 채용... 평균 4.5명 뽑아  
채용 국가(中)美>日>베트남>유럽

국내 취업난으로 인해 해외취업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약 7곳이 무역·해외영업 관련 업무를 할 글로벌 인재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잡코리아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국내 기업 139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채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56.1%가 현재 무역 및 해외영업 관련 업무를 할 글로벌 인재 채용 계획이 있었다. 반면 32.4%는 글로벌 인재 채용 계획이 없었고, 11.5%는 아직 채용계획이 미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글로벌 인재 채용 형태(복수

선택)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국내 인력을 채용한다는 응답률이 87.2%로 가장 많았고, △해외 유학과 국내 인력을 채용한다는 기업이 37.2%였다.

글로벌 채용 인원은 한 기업당 평균 4.5명 정도였으며, 연 평균 △1~5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한다는 기업이 46.0%, △6~10명 13.7% △10~20명 10.8% 등의 수준이었다.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자유로운 외국어 구사능력 때문이라는 응답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해외근무 가능(35.1%) △글로벌 감각(31.9%) △문화적 개방성(17.0%) △향후 해외시장 진출 대비(13.8%) △높은 전문지식(10.6%) △폭넓은 해외 인맥(4.3%) 등의 순이었다.

해외업무 담당 국가(복수 응답)로는 △중국에 응답률 52.1%로 1위를 차지했

으며, 다음으로 △미국(30.9%) △일본(29.8%) △베트남(22.3%) △유럽 국가(13.8%)가 상위 5위권 안에 들었다. 이외에 △캐나다(9.6%) △필리핀(7.4%) △중동 국가(3.2%) △호주(3.2%)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를 채용할 때 겪고 있는 어려움(복수 응답)으로는 △'채용 분야의 역량을 갖춘 전공자가 부족하다'가 응답률 47.5%로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지원자의 희망 연봉이 너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도 41.7%로 비교적 높았다. 이외에 △입사 지원자가 부족하다(24.5%) △입사 후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20.9%)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이 부족하다(10.8%)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도 있었다.

/한용수 기자

## 한성대 재학생들 DB 투자대회 '수익률 1위' 수상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무역학과 재학생 3명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DB금융투자 본사에서 열린 '2018년 DB GAPS 투자대회' 시상식에서 수익률 우수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아시아 금융 중심지 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한성대 무역학과 재학생인 윤선우·유정현·이민영 씨는 DNA팀으로 대회에 출전해 투자계획서 제출(5월 말), 포트폴리오 운용(6월~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110개 대학 602개 팀 총 1806명이 참가했으며, 한성대 팀은 '상품의 가치에 투자하자'라는 투자 철학으로 5개월간 포트폴리오를 운용한 결과 최종 수익률 1.507%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투자 수익률에만 집중했던 기존 대회와 달리 국내 최초로 글로벌



한성대 무역학과 재학생 3명이 지난달 24일 열린 '2018년 DB GAPS 투자대회' 시상식에서 수익률 우수부문 1위를 수상했다. /한성대학교

자산배분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주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성대 무역학과 4학년 윤선우 씨는 "이번 대회는 책으로만 보던 세계 경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올바른 투자 철학을 고민해 본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 경희사이버대 호남·영남 지역서 특강·입학설명회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오는 8일과 9일 호남과 영남지역에서 각각 특강과 입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특강과 입학설명회에서는 경희사이버대 각 분야 전문 교수진이 나와 특강하고, 2019학년도 예비 입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과 소개와 입시 정보 등을 소개한다. 특히 각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개 특강으로

진행된다.

8일 호남지역학습관에서 진행되는 특강에서는 조용대 교수(금융경제전공)가 '금융위기와 자산관리'를 주제로 특강하고, 9일 영남지역학습관 특강에서는 이정민 교수(도시계획부동산전공)가 '생애 전환기, 생활속의 부동산 경제 이해-주거복지사 자격증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한다.



조용대 교수

이정민 교수

특강 이후 입학·학생처 이혜린 처장과 지역학생회 간담회가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 국민대 재능기부 공연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예술대 20주년 기념 무용 공연 열어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가 문화예술 재능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3일 국민대에 따르면, 예술대학 무용전공 교수·학생들은 지난 11월 22일~23일까지 2일간 국민대 예술관 대극장에서 '2018 국민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날 공연은 예술대학 20주년·무용전공 19주년을 맞아 교내 구성원들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들과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향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



국민대 예술대학 무용전공 교수·학생들은 지난 11월 22일~23일까지 2일간 국민대 예술관 대극장에서 '2018 국민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국민대

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세 장르를 모두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마련했다. /한용수 기자